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11월 22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 축일

11월의 끝자락, 달력이 한 장 남으면 왠지 마음이 조급 해진다. '올해도 다 갔네' 하는 아쉬움도 들고, 한 해 동안 이리저리 미뤄둔 일들도 생각난다. 교회 전례력도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 부터는 새해를 맞는 대림의 시작이다. 이름도 다소 길게 느껴지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우리 왕 그리스도께 우리는 얼마나 내어 주고 살았는지 우리의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결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다정하니 성적표 받는 날처럼 미리부터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제1독서(에제키엘서)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직접 챙기시는 착한 목자로 "길 잃은 양을 찾아내고, 다친 곳은 싸매 주며, 지친 영혼은 푸른 풀밭에 눕혀 쉬게 하시는(시편 23장) 그야말로 완벽한 1:1 전담 케어를 약속하신다. 하지만 여기에 섬뜩한 반전도 있다. 다정한 목자께서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고 서늘한 경고를 날리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고 다 안아 주시는 사랑스러운 양은 아니다. 약한 양들의 몫을 뺏아 먹고, 뒤에서 슬쩍 밀쳐내며 제 배만 불리는 양체 같은 덩치 큰 양들, 즉, 공동체 안에서 제 힘과 권력을 믿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기적인 기득권층을 주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양은 착한 편, 염소는 나쁜 편'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양은 오른쪽(구원)에, 염소는 왼쪽(파멸)에 세우신다는 비유 때문에 염소가 억울하게 악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유목 현장은 조금 다르다. 양은 순하지만 워낙 게으르고 움직이길 싫어해서, 가만히 두면 운동 부족으로 병에 걸리거나 길을 잃기 십상인데 비해 염소는 쉴 새 없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겉보기엔 양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으른 양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위험한 길에서 앞장서서 이끄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성경(예레 50,8)에서도 위기에서 탈출할 때 "양 떼 앞에서 걷는 숫염소들처럼 앞장을 서라"고 말할 정도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 것은 염소가 나빠 서가 아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가 추위를 타는 염소는 우리 안쪽에, 더위를 타는 양은 바깥쪽에 따로 재우듯,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상으로 비유하신 것뿐이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영광의 옥좌에 앉으실 재판관이시다. 그날의 심판 기준은 거창한 신학적 지식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다. 기준은 "내 주변의 작고 힘없는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이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이들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주님)에게 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예수님 오른쪽에 설 사람들은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 년 내내 한 번도 안 입고 옷장 자리만 차지하던 멀쩡한 옷을 과감히 꺼내 필요한 곳에 나누는 사람, 하루 종일 말동무 하나 없이 적막한 TV 소리만 친구 삼아 지내는 어르신 곁에 앉아 한두 시간이고 수다를 떨어주는 사람, 배고픈 이웃을 위해 정성껏 샌드위치를 싸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람……. 바로 이런 소소한 다정함을 실천하는 평범한 이웃들이 당당히 주님 오른쪽에 서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이웃에게 건넨 작은 친절과 사랑은 훗날 '인류의 맏형'이신 예수님께 드린 선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반대로, 사람과의 단절이 곧 하느님과의 단절이기에 내 곁의 사람을 외면하고 밀어내는 것은 곧 하느님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 그분은 오직 하나, 우리가 세상의 가장 작은 이들에게 내어준 마음의 온도를 기억하실 것이다. 사람에게 닫힌 마음은 하느님께 닫힌 마음이고, 이웃을 향한 환대는 곧 하느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경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주님 오른쪽에 서기 위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저 내 곁에 있는 가족, 외로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오늘 내 곁의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웃)을 반갑게 맞이하며, 올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였으면 한다.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11/ 22	박은미(안젤라)	김양균(아네스)	최경애(아가다)		김화룡(수산나)
	정형식(저스틴)	서원복(로사리아)	임기홍(스테파노)		김영자(마리안나)
26 년 11/ 29	소은주(크리스티나	허성숙(로사리아)	이정명(세실리아)		임장하(데레사)
	김경숙(클로틸다)	이향례(자넷)	임기홍(스테파노)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 동 체 소 식



◎ 추수감사절 사랑의 터키 나눔
추수 감사절을 맞아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사랑의 터키 나눔 식사가 준비 되었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교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신 모니카회원들과 도움을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6 년 본당 송년파티
26 년도 본당 송년파티를 밴드를 초청하여 개최하오니 전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 년 11 월 29 일(일) 오후 4:00 ~ 9:00
▸장소: Lone Tree Manor Banquet Hall
▸참가비: $50.00/1 인당
▸참가신청: 활동분과장 혹은 활동 각 단체장
※ 참가신청은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는 신청 시 납부를 부탁드리고, 공연 참가팀도 미리 신청바랍니다.

◎위령 성월 연령회 연도
위령 성월을 맞아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11 월 29 일 9 시 미사 후 대성당에서 모든 연령들을 위한 연도가 봉헌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봉성체 안내
11 월 27 일(금) 환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녀님 혹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빈첸시오 기빙트리
가난하고 소외된 홈레스센터,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겨울 용품으로 돕고자 자선후원회비를 친교실에서 11 월 22 일~12 월 20 일까지 접수합니다.

◎성경 필사
신, 구약 성경 중 읽고, 쓰며, 묵상하고 싶은 말씀 한권을 선택, 필사해서 12 월 13 일까지 제출하시면 본당 사랑의 구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18)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임기홍(스테파노), 정성수(유스티노), 이의철(요한), 박병규(어거스틴), 신난숙(젬마), 정명례(소피아), 김영(모니카), 이지훈(베드로), 차효길(스테파노), 배홍기(그레고리오), 이치섭(바오로)

○교무금	$ 1,790.00	○주일헌금	$ 1,663.00
○토요, 영어미사	$ 204.00	○감사헌금	$ 500.00
○9일기도봉헌	$ 30.00	○선교바자회	$ 84.00

▪감사헌금:
박유자(요안나), 이의석(대건안드레아), 익명1분

『 2026년 11월 22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유명주(마가렛), 엄광식(토마스), 배기심(보나)
김정우(바오로), 김양균(아네스)

■ 연미사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이옥수(다두),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조문기(사스땅야고보), 김순열(카타리나), 이동준(베드로), 이선애(마틸다), 임영일(바오로), 김희왕(스테파노),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김영숙(데레사), 정금주(요한), 이영기(막달라마리아), 최장식(안드레아), 최조선(마리아), 최판자(아그네스), 박명호(대건안드레아), 제임스짐 우진스키, 지동식,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11월 24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승재(야고보), 백용길(그레고리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이영기(막달라마리아) **(연미사)**

11월 25일(수) ~ 11월 28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이영기(막달라마리아)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파트너스 부동산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배 페인팅
배 홍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라저스팍 꽃집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정통 한정식 전문점
반 포 정
전곡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Michael Zyung
BAIRD & WARNER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냉면이라면 조선옥 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백이도 역시
조선옥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자동차정비와 바디에 관한모든것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go, IL 60614
312.929.9068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젬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일):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일):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일):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11 월 22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왕 대축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4,11-12.15-17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20-26.2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복음 마태오 25,31-46

◉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79 봉헌성가 239
성체성가 496 파견성가 75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